

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58호 / 10월 15일

중국 은행의 對중소기업 대출 문제점과 사례분석

1. 개요

-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, 여전히 일선 은행은 對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진한 이유는 은행이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대출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, 市 지점이 대출심사를 담당하면서 관할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임.
 -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심사를 간편화 하고, 대출창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함. 또한 市지점에 집중된 대출권한을 縣 지점으로 이양해야 할 것임.

2. 상업은행의 對중소기업 대출 문제점

- 상업은행의 기업대출이 국유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.

-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고는 있으나, 실제로는 여전히 △ 정부가 지정한 중점항목 대출, △국채프로젝트 대출, △각 지방정부의 SOC 건설 대출, △국유기업 대출 등 은행 자체의 대출 의지와 관계없는 정책성 대출이 많음.
 - 게다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담보물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약점이 있어 장기저리의 대출보다는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음.
- 더욱 중요한 요인은 대출요건을 충족시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대출 절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여 적기에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임.(<표 1> 참고).
- 市 단위 이상의 지점만이 대출권을 갖고 있어 縣 소재 기업은 대출에 매우 불리함.
 - o 첫째, 대출심사가 상위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, 둘째, 市 지점이 해당 지역이나 기업의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, 셋째, 은행의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음.
 - 당초 대출권을 市 지점 이상으로 집중시킨 이유는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여 대출리스크를 줄리려는 취지였지만,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임.
 - 실제로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규모가 작아 은행의 이익이 작다는 이유로 대출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, 농촌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상황에 어두운 市 지점이 탁상행정으로 대출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음.

<표 1> 은행대출심사 비준절차 및 소요시간(대출액 100만 元 기준)

| 번호 | 절차 | 부문 | 소요 시간 | 비용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| 신청 | 지점영업부 | 1주 | | |
| 2 | 조사 | 지점고객부 | 2~3주 | | |
| 3 | 심사 | 지점대출과 | 1주 | | |
| 4 | 회계,심계 | 지점관리인원 | 1주 | | |
| 5 | 비준서명 | 지점은행장 | 1주 | | |
| 6 | 심계 | 회계사사무소 | 2주 | 건당 8,000元 | |
| 7 | 자산평가 | 자산평가사무소 | 1주 | 0.3%의 수수료 적용 (단, 50~60% 할인 가능) | |
| 8 | 보험처리 | 보험회사 | 1주 | 수수료: 대출액의 0.003~0.005% | |
| 9 | 공증 | 사법국 | | 건당 300元 | |
| 10 | 파견지점 조사 | 市지점고객부 | 2~3주 | | 대기건수 多 |
| 11 | 지점심사 비준 | 市지점대출처 | 2~3주 | | 대기건수 多 |
| 12 | 지점대출, 회계심사 | 지점관리인원 | 2~3주 | | 대기건수 多 |
| 13 | 심계비준 | 縣주택관리국 | 1주 | 수수료: 대출액의 0.01~0.02% | |

주1: 일반적으로 수속에 18주에서 20주의 시간이 소요됨.

주2: 일반대출의 기간은 1개월에서 1년이며, 평균적으로 1,5000元의 수속비가 소요됨.

3. 대출사례 분석1)

□ 사례 1: 소형 대출에 대한 대출거부

- 유동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모 기업주가 관련 서류를 작성후, 상업은행의 현급 지점에 40만 元의 개인대출을 신청함.
- 해당 지점의 대출담당자는 5일내로 대출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, 한 달이 지나도록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.
 - o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市지점에서 대출액이 적어 대출에 따른 은행의 수입이 월 1,000元에 불과하다며 대출을 거절한 것임.

1) 본 사례는 『工商時報』 2002년 9월 10일자에서 인용

□ 사례 2: 대출권을 가진 상급 지점이 대출에 보수적인 사례

- 縣지역에 소재한 모 우량 중소기업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상업은행으로부터 총 139건의 단기대출을 받았고, 모두 기간내 상환하였음.
 - o 이 기업은 방직기업으로서 비수기에 재고를 비축하고, 성수기에 판매하는데 이에 따라 비수기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음.
 - o 또한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매년 ‘AA’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, 지역내 우수 세금납부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.
-
- 그러나 은행의 대출권이 市지점 이상으로 집중되면서, 금년에는 대출신청이 거부되었음.
 - o 심사결과 찬성비율이 64%로 합격선인 70%에 약간 미달하였는바, 결국 은행의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이 건전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 (***)